

메이지 시대의 옛모습

재판소 돌담

마쓰에 지방 재판소는, 메이지 23(1890)년에 현재 장소로 옮겨왔으며, 이 시기에 재판소를 둘러싸는 돌담이 만들어졌습니다. 재판소 쪽 서쪽과 동쪽에는, 이 시기의 돌담이 남아 있으며, 현재도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.

마쓰에 성 밑에는 지금도 많은 축벽이 남아 있는데, 잘 보면 장소에 따라 축벽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는, 시대에 따라 쌓는 방법과 돌을 가공하는 방법, 사용하는 석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마쓰에성 축벽과 재판소 돌담을 비교하면, 그 차이는 명백합니다.

덧붙여, 재판소 남쪽(정면 현관)돌담만은, 도로폭을 넓힐 때 이전 복원된 최근의 돌담입니다.